



文, 기초단체장들과 "파이팅"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운데)가 28일 국회에서 기초단체장협의회와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위에 공 넘긴 文, 내부 정비 속도내나

野 고위 당직자 9명 일괄사표... 당직 개편 구상 몰두 비노·중도 성향 의원들과도 소통... 호남 민심 청취도

혁신위 출범으로 4월 재보선 패배에 따른 책임론 후폭풍에서 벗어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내부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당 안팎의 관심이 혁신위로 쏠리다 비주류의 협력을 장담할 수 없어 불안한 모습은 여전하다.

문 대표는 최근 고위 당직자 9명의 일괄 사표를 받고서 당직 개편 구상에 몰두하며 분위기 쇄신을 모색하고 있다. '당평'과 '쇄신'이라는 큰 원칙을 세웠지만, 세부적인 콘셉트를 두고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 대표는 이번 내용 국면에서 불거진 '비선 논란'을 털어내기 위해 정부특보단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선 폭은 당직자 전원 교체에 가까운 대폭인사

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의 안정이 우선인 만큼 일부 교체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보선 패배에 책임을 진다는 상징성도 있는 만큼 사무총장이나 등이 교체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인사들은 유입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노 성향 당직자들을 그대로 유입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예고된다는 점에서 고민되는 지점이다.

김영록 수석 대변인 등 일부 중도 성향 고위 당직자들의 유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고사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홍보본부장 일부 당직에 외부인사 영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선 시기는 혁신위원회 구성 시기와 맞물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직 인선을 통해 체제를 안정시키고 공천혁신 추진단, 지역분권추진단, 네트워크정당 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3대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비노 진영에서는 주요 보직에 친노 인사의 배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겨우 잡혀왔던 계파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경우, 문 대표의 리더십은 더욱 상처가 커질 수도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일각에서는 '비선' 비판을 피하려면 오히려 오직에 문 대표와 가까운 인사를 얹혀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 전 대표가 고사한 인재영입위원장 등을 두고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3대 혁신 추진단도 혁신위원회와의 관

계설정 등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

문 대표는 내부 전열을 가다듬으며 취임 직후 강조했던 '유능한 경제정당' 깃발을 다시 올린다는 방침이다. 민주정책연구원에 김철구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소득주도성장론을 다시 다듬기로 했다. 혁신위 출범후 1박2일 지역방문 등을 포함한 민생탐방도 재개하기로 했다.

비노 및 중도 성향 의원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문 대표는 28일 전남의 이개호, 신정훈 의원과 오찬을 갖고 당내 현안과 호남 민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문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일부 기초단체장들은 "호남은 가장 개혁적인 선택을 하는 곳"이라며 "친노·비노 계파정치를 하는 대신 호남의 민심을 더 깊숙이 들여다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野 기초자치단체장들 지도부 자성 촉구

"의원·여의도 중심 패권 다듬 그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이 28일 지도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정책간담회를 갖고 "새정치연합이 국회의원·여의도·중앙당 중심의 패권적 권력 다듬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장들은 이어 "국민들은 함들어 죽겠다는데 당은 여의도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자리 다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지금 논의되는 당의 혁신안도 국회의원 선출 방식과 권한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성원간 의리와 배려도 없고 지킬만한 규칙조차 없는 상태"라며 "패권주의와 패배주의가 젖어 당을 바로 세우려는

절박함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질제점점으로 혁신해야 할 때며 특히 생활 정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현재 구성중인 혁신위원회에 지방정부의 대표를 포함시켜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당에 생활정치위원회를 신설할 것 ▲민주정책연구원을 개혁해 지방정부 정책을 적극 반영할 것 ▲정책 전달대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 현재 당의 주요 결정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활성화해 폭넓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천정배 의원 '24시 천문고' 개설

지역 구민들과 소통·정치 현안 청취 약속

무소속 천정배(광주 서구) 국회의원은 28일 사이버 소통센터인 '24시 천문고'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천정배의 신문고'를 줄인 말로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소통의 장을 의미한다고 천 의원은 설명했다.

천 의원은 "소소한 동네 민원에서부터 정치 현안 등을 망라한 24시간 열린 공간으로 늘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하늘처럼 섬기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24시 천문고는 지역 구 주민을 만나는 '마을돌기 행사'와

함께 지난 4·29 보궐선거 당시 주민께 드린 실천 약속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천정배 의원의 공식 블로그(http://hope_1000.blog.me)에 접속해 '24시 천문고'에 글을 올리거나 24시 천문고 공식 메일(mnsim1000@simhope@gmail.com)에 글을 남기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상곤 3대 원칙 '실력·헌신·내려놓기'

혁신위원 인선 작업 착수... 본격 쇄신 활동 위원 9명 안팎 구성... 김한길·박지원 등도 만날듯

새정치민주연합 쇄신을 진두지휘할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28일 혁신위원 인선 작업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초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혁신위원 인선 기준과 관련, ▲국민의 뜻을 잘 파악하는 실력 있는 인사 ▲혁신안을 묵묵히 만들어갈 헌신적 인사 ▲국민과 당원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인사 등의 3대 원칙

을 내놔다.

김 위원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공천권 포기를 의미하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구체적인 의미는 아니다. 내부 인사로 구성할지 외부 인사로 구성할지도 전혀 생각지 않았다"고 답했다.

위원의 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지지는 못했다면서도 9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는 생각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들은 저명한 경제학자, 과학계 인사, 젊

은 인물 등 다양한 인사들의 참여가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아닌) 혁신위가 정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한 달은 훨씬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상임고문단 회동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김한길 전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들도 차례로 만나겠다는 방침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단' 발대식에 나와 "위원장 내정 후 전화가 와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으며, 사의를 표한 주승용 최고위원 역시 "(김 위원장이) 만나자고 하면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순하구 전 삼입고문에게도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 혁신위와 최고위원 관계설정여 말뚝이 잡히지 않은 점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에 전권을 부여했지만, 여전히 당내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로 남아있어 이후 권한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저녁 여수YMCA 초청으로 여수를 방문, 여수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어떤 사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정현 의원, 국회서 '곡성멜론' 판촉행사

내달 16일...시중가 10% 할인

새누리당 이정현(순천시·곡성군)의원과 곡성군이 오는 6월16일 국회의원회관 후생관 앞 광장에서 '국회 홍보 및 판촉행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행은 곡성멜론의 우수성과 농식품 파워브랜드 국무총리상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이 의원과 곡성군이 주최하고, 곡성군농협연합사업단, (주)곡성멜론 주관 하에 열릴 예정이다.

이들 멜론은 비파괴 당도 분석기로 공동선별한 것으로 시중가격보다 10% 할인된 금액에 판매된다.

이 의원은 "정식 식품 파워브랜드 국무총리상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이 의원과 곡성군이 주최하고, 곡성군농협연합사업단, (주)곡성멜론 주관 하에 열릴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kwangju.co.kr

2015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3차)

지역의 산업발달을 위하여 기초중심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에 위한 로보틱스·바이오·신소재 등 중대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2015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I. 세부사업 지원내용

1. **로보틱스·바이오·신소재사업**

가. 사업목적: 국가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한 로보틱스·바이오·신소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나. 지원규모: 예산: 2015년 1,500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1500만 원 이하)

II.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가. 신청자격: 중소기업(1500만 원 이하)

나. 지원방식: 지원기간: 2015년 6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 지원규모: 예산: 2015년 1,500억원

III.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5/29, 사업신청서 접수: 6/29, 평가방법: 7월 중, 결과발표 및 이해관계자 협의: 7월 말,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7월 말

나. 평가방법: 지원대상: 중소기업(1500만 원 이하)

4면의 혁신, 30년의 성장